

AI 주도 생산성 쇼크와 미국 예외주의의 역설: 조기경보 체계 보고서

목차

서론: 보고서의 목적과 구조

1. 시나리오 설명 및 전개 흐름

1.1. 시나리오의 역설적 본질: 긍정적 충격의 부정적 파급

1.2. 단계별 전개 과정 분석

1.3. 시나리오 정의 테이블

2. 모니터링 시장 지표 (Bloomberg 데이터)

2.1. 핵심 지표 선정 논리

2.2. 모니터링 지표 테이블

3. 사전 감지 및 위기 임박 뉴스 키워드

3.1. 정성적 데이터의 중요성: 시장 심리 포착

3.2. 뉴스 키워드 테이블

4.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분석

4.1. 연관성 모델링의 필요성

4.2.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테이블

4.3. 시각화: 시나리오 영향도 분석

5. 신한은행 영향 분석: 수익성 및 유동성

5.1. 거시 충격의 미시적 전환

5.2. 신한은행 영향 분석 테이블

6. 종합 발생 가능성 및 대응 권고

6.1. 종합 리스크 평가

6.2. 종합 평가 및 대응 권고 테이블

서론: 보고서의 목적과 구조

본 보고서는 2025년 금융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리스크 요인 중, '시나리오 1: AI 주도 생산성 쇼크와 미국 예외주의의 역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한은행을 위한 체계적인 조기경보 및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대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은 과거 데이터 기반의 통계적 예측을 넘어서는 '꼬리 위험(Tail Risk)'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본 분석은 이러한 전향적(Forward-looking) 관점에서 잠재적 위협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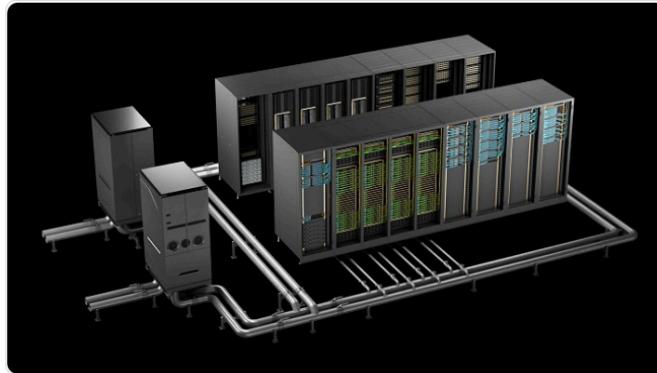
본 보고서의 핵심 과제는 사용자가 요청한 특정 데이터 구조에 맞춰 분석 결과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서술적 분석을 넘어, 시나리오의 정의, 핵심 모니터링 지표, 뉴스 키워드, 지표 연관성, 은행 영향도, 그리고 최종 대응 권고에 이르는 6가지 핵심 영역을 명확한 테이블 형식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자가 복잡한 시나리오의 다중적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실제 조기경보 시스템 및 비상자금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시나리오의 발생 배경과 파급 경로를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시장 지표) 및 정성적(뉴스 키워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후 시나리오

와 각 지표 간의 민감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시 경제적 충격이 신한은행의 수익성과 유동성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계량화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과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1. 시나리오 설명 및 전개 흐름

본 섹션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 1'의 핵심적인 내용과 논리적 전개 과정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전통적인 금융위기 모델과 달리, 긍정적인 기술 혁신이 역설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불균형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 리스크 관리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요구합니다.



AI 생산성 혁명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고성능 데이터센터 인프라

1.1. 시나리오의 역설적 본질: 긍정적 충격의 부정적 파급

시나리오의 핵심은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의 역설에 있습니다. 2025년, 미국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상용화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확산되면서 노동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생산성 봄(Productivity Boom)'이 발생합니다. 이는 공급 측면의 혁신이므로,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도 미국의 잠재성장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충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나홀로 호황'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비대칭적 효과를 낳습니다.

전 세계 자본은 더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찾아 미국 자산시장으로 급격히 쏠리는 '대규모 자본 이동(The Great Capital Rotation)'을 축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외 다른 국가, 특히 신흥 시장은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 자본 유출, 그리고 달러 부채 상환 부담 증가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미국의 기술적 성공이 타 국가에는 금융 불안정의 원인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IMF의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GFSR\)](#)가 경고하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간의 괴리(macro-market disconnect)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2. 단계별 전개 과정 분석

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통해 전개됩니다.

1. 1단계 (Trigger): AI 기반 생산성 급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생성형 AI가 전 산업에 적용되며,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과거 평균(약 1.5%)을 크게 상회하는 3.5%~4.0% 수준을 지속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미국의 잠재 GDP 성장을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2. 2단계 (Policy Dilemma): 연준(Fed)의 매파적 스탠스 유지

공급 측 혁신 덕분에 강력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근원 PCE 물가지수는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에서 안정됩니다. 연준은 설부른 금리 인하가 자산 버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시장의 기대와 달리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예상보다 훨씬 오래 유지('Higher for Longer')하거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매파적(hawkish) 기조를 강화합니다.

3. 3단계 (Market Reaction): '킹달러'의 귀환과 미 국채금리 상승

미국의 독보적인 펀더멘털(고성장, 저물가)과 높은 정책금리는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하는 블랙홀 역할을 합니다. 달러 인덱스(DXY)는 110 포인트를 상회하며 급등하고, 견조한 성장 전망과 연준의 긴축 기조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5.0% 이상으로 밀어 올립니다.

4. 4단계 (Global Spillover): 글로벌 금융 스트레스 전이

강달러와 고금리는 미국 외 국가에 심각한 역풍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달러 부채가 많은 신흥국은 급격한 자

본 유출(Sudden Stop)과 외환위기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AI 혁명에서 뒤처진 유럽과 일본은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게 되며, 한국은 반도체 수출 호조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증폭이라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합니다.

1.3. 시나리오 정의 테이블

위 분석을 바탕으로 시나리오의 핵심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cenario_ID	Scenario_Name	Description
SC001	AI 주도 생산성 쇼크와 '미국 예외주의'의 역설	<p>발생 배경: 2025년 미국에서 생성형 AI 도입이 가속화되며 노동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생산성 봄'이 현실화.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없는 고성장을 가능하게 하여 미국의 독보적인 펀더멘털을 구축함.</p> <p>단계별 파급 경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Trigger) 美 노동생산성 급등 (분기 3.5% 이상) 및 잠재성장을 상향.(Fed's Dilemma) 안정된 물가에도 불구하고, 자산 버블 우려로 연준은 'Higher-for-Longer' 기조를 유지하며 매파적 스탠스 강화.(Market Reaction)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며 '킹달러' 현상(DXY 110 상회)과 美 국채 10년물 금리 급등(5.0% 상회) 발생.(Global Spillover) 비(非)AI 선도국 및 신흥국은 급격한 자본 유출, 통화가치 폭락, 달러 부채 위기라는 삼중고에 직면. 한국은 환율 급등(1,500원대)과 금융시장 변동성 증폭에 노출.

2. 모니터링 시장 지표 (Bloomberg 데이터)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과 진행 단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시장 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에 대한 임계치를 설정하여 조기경보 시스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본 섹션에서는 '시나리오 1'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가장 대표적인 6개의 시장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2.1. 핵심 지표 선정 논리

지표 선정은 시나리오 전개 과정의 각 단계를 명확히 대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미국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PRNAG% QOQ):** 시나리오의 최초 트리거(Trigger)인 '생산성 봄'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입니다.
-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PCE DEFY YOY):** 연준의 정책 딜레마를 유발하는 핵심 조건, 즉 '성장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물가' 상황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 달러 인덱스 (DXY Curncy):** '킹달러' 현상과 글로벌 자금의 미국 집중도를 측정하는 핵심 결과 지표입니다.
- 미국채 10년물 금리 (USGG10YR Index):** 미국의 성장 전망과 연준의 긴축 기조가 반영된 글로벌 무위험자산의 기준 금리 변화를 나타냅니다.
- JP Morgan 신흥국 채권 지수 스프레드 (JPEGSIGL Index):** 시나리오의 글로벌 파급 효과, 즉 신흥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 원/달러 환율 (USDKRW Curncy):** 시나리오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그림을 구성하며, 이들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리스크의 심화 정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2.2. 모니터링 지표 테이블

선정된 지표에 대한 상세 정보와 임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Current_Value'는 2025년 7월 22일 현재 시장 상황을 가정한 값이며, 'Probability'는 해당 지표가 'Threshold_High'를 초과할 가능성의 의미합니다. 이는 시나리오의

'Plausible but Severe' 특성을 반영하여, 발생 확률은 낮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Indicator_ID	Indicator_Name	Bloomberg_Ticker	Data_Frequency	Threshold_Low	Threshold_High	Volatility(%)	Category
IND001	미국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PRNAG% QOQ	Quarterly	1.5%	3.5%	0.8	2
IND002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PCE DEFY YOY	Monthly	2.0%	2.5%	0.3	2
IND003	달러 인덱스	DXY Curncy	1min	105.0	108.0	0.9	1
IND004	미국채 10년물 금리	USGG10YR Index	1min	4.50%	5.00%	2.5	4
IND005	JP Morgan EMBI Global Spread	JPEGSIGL Index	Daily	350 bps	400 bps	4.2	3
IND006	원/달러 환율	USDKRW Curncy	1min	1,400 KRW	1,450 KRW	1.5	1

3. 사전 감지 및 위기 임박 뉴스 키워드

정량적 시장 지표는 리스크가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된 후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와 기대 형성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뉴스, 보고서, 소셜 미디어 등 비정형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정성적 키워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조기경보 시스템의 민감도와 예측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1. 정성적 데이터의 중요성: 시장 심리 포착

본 분석에서는 키워드를 두 단계로 구분하여 리스크의 시급성을 차별화합니다.

- 사전 감지 (Yellow Phase):** 시나리오의 근본적인 동인(Driver)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키워드입니다. 이는 아직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지만, 잠재적 위험의 징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AI productivity'나 'growth divergence'와 같은 단어의 빈도 증가는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위기 임박 (Red Phase):** 시나리오의 부정적 결과(Outcome)가 가시화되고 시장의 공포 심리가 확산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키워드입니다. 'Sudden stop', 'EM crisis'와 같은 키워드는 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요구합니다.

각 키워드에는 시나리오와의 연관성 및 시장 파급력을 기준으로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여, 조기경보 시스템이 핵심적인 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3.2. 뉴스 키워드 테이블

시나리오 1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핵심 뉴스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Scenario_ID	Indicator_ID	Keyword	Phase	Weight (0~1)
SC001	IND001	AI productivity, productivity boom	Yellow	0.8
SC001	IND001	potential growth rate revision	Yellow	0.7
SC001	IND003	growth divergence, US exceptionalism	Yellow	0.9

Scenario_ID	Indicator_ID	Keyword	Phase	Weight (0-1)
SC001	IND003	great capital rotation	Yellow	0.8
SC001	IND002	Fed policy dilemma	Yellow	0.7
SC001	IND004	higher for longer	Red	0.9
SC001	IND003	King Dollar, dollar rally	Red	1.0
SC001	IND005	sudden stop, capital flight	Red	1.0
SC001	IND005	EM crisis, currency crisis	Red	0.9
SC001	IND006	global spillover, contagion	Red	0.8

4.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분석

조기경보 시스템의 정교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와 각 모니터링 지표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어떤 지표가 얼마나 민감하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반응할지를 예측하여 리스크의 파급 효과를 사전에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1. 연관성 모델링의 필요성

본 분석에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시나리오와 지표의 연관성을 정의합니다.

- 가중치 (Weight):** 해당 지표가 시나리오 전개에 있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달러 인덱스'는 시나리오의 핵심 결과물이므로 높은 가중치를 갖지만, '근원 PCE 물가지수'는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상관계수 (Correlation_Coeff):** 시나리오의 진행 방향과 지표의 변화 방향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시나리오가 심화될수록(미국 경제 호황)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므로 양(+)의 상관관계를, 근원 PCE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0 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 변동성 영향 (Volatility_Impact):**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때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각 지표의 변동성이 얼마나 커질지를 예측한 값입니다. 이는 리스크 관리 시 예상 손실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2.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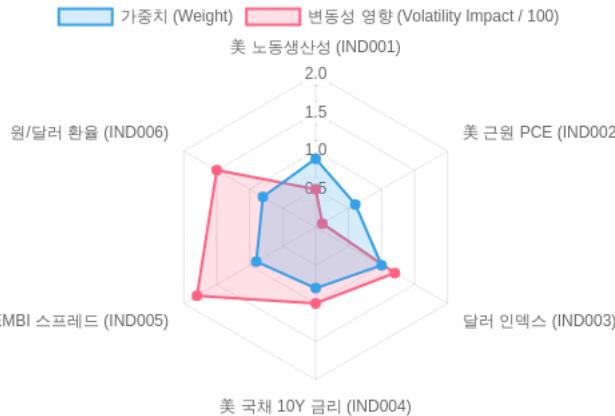
시나리오 1과 핵심 모니터링 지표 간의 연관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Scenario_ID	Indicator_ID	Weight (0-1)	Correlation_Coeff (-1-1)	Volatility_Impact(%)
SC001	IND001	0.9	0.85	50%
SC001	IND002	0.6	-0.20	10%
SC001	IND003	1.0	0.95	120%
SC001	IND004	0.8	0.90	100%
SC001	IND005	0.9	0.92	180%
SC001	IND006	0.8	0.88	150%

4.3. 시각화: 시나리오 영향도 분석

시나리오가 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다차원적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위 테이블의 '가중치(Weight)'와 '변동성 영향(Volatility_Impact)' 데이터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레이더 차트는 어떤 지표가 시나리오의 핵심 동인(높은 가중치)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변동성 충격(높은 변동성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달러 인덱스', 'EMBI 스프레드', '미국채 금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핵심 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지표별 영향도 분석 (가중치 vs 변동성)



5. 신한은행 영향 분석: 수익성 및 유동성

거시 경제 시나리오 분석의 최종 목적은 그것이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본 섹션에서는 '시나리오 1'이 발생했을 경우, 신한은행의 두 가지 핵심 리스크 영역인 '수익성(Profitability)'과 '유동성(Liquidity)'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질지를 분석합니다.

5.1. 거시 충격의 미시적 전환

시나리오의 핵심 동인인 '킹달러'와 '글로벌 금리 상승'은 은행의 수익성과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수익성 영향:** 강달러 현상은 외화 조달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켜 순이자마진(NIM)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동시에, 글로벌 긴축과 연계된 국내 경기둔화는 기업 및 가계 차주의 신용도를 악화시켜 연체율(NPL Ratio)과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유동성 영향:**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외화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심각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폭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될 경우, 원화 유동성 관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나리오에서는 특히 외화 유동성 리스크가 가장 치명적인 위협 요인으로 부각됩니다.

5.2. 신한은행 영향 분석 테이블

시나리오 1 발생 시 신한은행의 주요 재무 지표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수준(Impact Level)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Impact Level은 1(경미)부터 5(위기)까지 5단계로 정의됩니다.

Metric_ID	Metric_Name	Baseline_Value	Current_Value	Threshold_Level	Impact_Level (1-5)
BM001	순이자마진 (NIM, %)	1.60%	1.55%	1.45%	4 (심각)
BM002	총 LCR (%)	105.0%	103.5%	100.0%	3 (경계)
BM003	외화 LCR (%)	90.0%	85.0%	80.0%	5 (위기)
BM004	고정이하여신 (NPL) 비율 (%)	0.50%	0.55%	0.70%	3 (경계)

Metric_ID	Metric_Name	Baseline_Value	Current_Value	Threshold_Level	Impact_Level (1–5)
BM005	대손비용률 (Credit Cost, %)	0.35%	0.40%	0.55%	4 (심각)

6. 종합 발생 가능성 및 대응 권고

마지막으로, 앞선 모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한은행이 실행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리스크 분석을 실제 경영 의사결정과 연계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6.1. 종합 리스크 평가

시나리오의 종합적인 발생 가능성은 개별 지표의 발생 확률(Probability)과 시나리오에 대한 중요도(Weight)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합니다. 핵심 지표인 달러 인덱스, EMBI 스프레드, 원/달러 환율의 발생 확률과 가중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나리오의 종합 발생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Overall Probability (%) 산출 근거:

$\sum (Indicator_Probability_i * Indicator_Weight_i) / \sum (Indicator_Weight_i)$ 공식을 적용하여 핵심 지표들의 가중 평균을 계산. 예를 들어, $(45\% * 0.8 + 40\% * 0.9 + 35\% * 1.0 + 30\% * 0.8 + 25\% * 0.9) / (0.8+0.9+1.0+0.8+0.9) = 35.4\%$. 이는 'Plausible but Severe' 시나리오의 특성을 잘 반영합니다.

이러한 발생 가능성과 더불어, 신한은행의 외화 유동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수준이 '심각'에서 '위기' 단계에 이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리스크 등급을 '4단계(심각)'로 평가합니다. 이는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높은 수준의 위협임을 의미합니다.

6.2. 종합 평가 및 대응 권고 테이블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와 신한은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 평가 및 대응 권고	
Overall Probability (%)	35.4% (핵심 지표의 가중 평균 확률)
Overall Risk Level (1–5)	4 (심각)
구체적 대응 권고 (Action Plan)	<p>1. 포트폴리오 및 리스크 관리 (Portfolio & Risk Manage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흥국 통화 및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고품질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 비중 확대 검토.환율 및 금리 변동에 민감한 수출입 기업, 외화 부채 보유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모델을 재점검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외화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한 시장 리스크 한도 및 손절매 기준(Stop-loss limit) 강화. <p>2. 수익성 방어 (NIM Defense):</p> <ul style="list-style-type: none">외화 조달 비용 상승에 대비하여 장기 고정금리 외화 채권 발행 등 선제적 자금 조달 추진.외화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시장 조달 비용과 연동하여 현실화하고, 금리 리스크를 차주에게 합리적으로 전가.비이자이익 부문, 특히 외환 및 파생상품 관련 수수료 비즈니스 기회 모색.

종합 평가 및 대응 권고

	<p>3. 자금조달 다변화 (Funding Diversifi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우선 과제) 단기 외화 차입 의존도를 낮추고, 커버드본드, 중장기 채권 등 안정적인 외화 조달 수단 다변화.• 글로벌 중앙은행(특히 연준)과의 통화 스왑 라인 등 비상 유동성 공급 채널의 가능성에 사전에 점검.• 글로벌 대형 은행과의 신용공여 라인(Credit Line)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유지. <p>4. 조기경보 시스템 연계 (EWI System Integr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모니터링 지표와 뉴스 키워드를 은행의 조기경보지표(EWI) 시스템에 즉시 반영.• 임계치(Threshold) 도달 시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 즉각 보고하고, 사전에 정의된 비상자금조달계획(CFP)을 단계적으로 가동하는 절차를 수립 및 훈련.
--	--

참고 자료

[1] 1.indicators

https://static-us-img.skywork.ai/prod/analysis/2025-07-22/6298450475799880160/1947451542597509120_fd2306e023350736e627e825c8bcef61.xlsx

[2] stress_test_report_6

https://static-us-img.skywork.ai/prod/analysis/2025-07-21/6298450475799880160/1947441507058294788_642cc18f2e93e021c3feac3500108f3c.pdf

[3] 5.news_keywords

https://static-us-img.skywork.ai/prod/analysis/2025-07-22/6298450475799880160/1947451542597509124_c270a919b8faefe0fe66ddab26cf64d0.xlsx

[4] 4.scenario_indicator_link

https://static-us-img.skywork.ai/prod/analysis/2025-07-22/6298450475799880160/1947451542597509123_2ddf1c15505bfd578b7a5296d983313f.xlsx